규암 성당

주소 :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291번길 11

홍산 사목 당시, 동료선교사를 찾아 불어로 고해성사를 보러 다님
몰리마르 신부 유언에 따라 규암본당(성 요셉 성당) 신축
1957-1960 성요셉 의원 소비녀 파견
1951년 4월 9일 월요일 일기(성재덕 2집)에 보면 몰리나르 신부는 부여 규암에 성요셉 성당을 짓기를 원했으므로 결국 유언으로 나에게 그것을 물려주었건만 이 전쟁통에 어떻게 성당을 지을 수 있을지 방법이 없다. 라고 적혀 있는데 후에 성 신부님은 몰리나르 신부님의 유언대로 부여에 성요셉 성당(규암 성당)을 짓는 모든 준비를 하셨고, 또 그곳에 요셉의원이라는 병원도 지었는데 그곳에 1957년부터 우리 성가소비녀 2명을 파견해서 3년 정도 소임을 하게 되었다.

찾아가는 길

금사리 성당 -> 규암 성당

독서 자료

서한5. 1956.12.16.

11월 3일부터 19일까지는 12군데의 교우촌을 방문하여 교우 수에 따라 미사를 한 대 혹은 두 대씩 드렸으며 **금사리 성당**을 방문했다. **그 본당의 몰리마르 신부는 공산당에게 죽음을 당하시어 그 성당은 나의 본당에 병합되었으므로 당분간 내가 대리임무를 보고 있는 셈**인데 언제쯤에나 주교님께서 그곳에 주임 사제를 보내실지는 나도 확실히 모른다. 그래서 나는 추가로 교리 공부, 찰고, 성사, 견진, 공부 등의 일을 더 맡아야 했다. 19일부터 23일까지 나는 본당으로 돌아와 있으면서 보좌 신부로 하여금 교우촌 10여 곳을 돌아보게 했다. 23일에 나는 이곳에서 30km 떨어진 금사리로 다시 출발하였다. 고해성사를 주었고 236명에게 견진성사를 주시러 오시는 주교님을 맞을 채비를 하였다. 그 많은 견진자들을 나 혼자 준비시켰어야 했으니 서류 작성만 해도 엄청났다. 삼위일제 중의 한 분이신 성령을 영접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인 사람들도 있었다.

서한 1951년 3월 5일 보베르에서, 몰리나르 신부님의 동생의 편지

경외하올 신부님,
지난해 5월 중순경에, 이제는 작고하신 저의 형으로부터 받은 편지글에서 한 문장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공산당들에게 당할까? 현재로서는 걱정할 것이 없으며 사건의 추이를 두고 보아야겠다.” 그런데 그 글을 읽고 얼마 안 가서 신문을 통해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마음은 형 곁을 떠나지 않았고 온통 그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형 앞에 놓여진 운명을 알 수 없어 저녁마다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지도를 펼쳐놓고 공산군 세력의 경로를 따라 가면서 요셉 형은 어디 있을까, 어떻게 지낼까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날이 가고 여러 달이 바뀌면서 공산군은 형이 계신 마을을 지나 계속 밀고 나갔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군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적군이 후퇴하고 저는 안심을 했지요. 그때쯤엔 형으로부터 소식이 곧 올 줄 알았어요.

바로 그때 파리의 일간지에서 프랑스 신부 몇 분의 사망소식을 알렸는데 그 중에 저의 형이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에 가슴을 태웠지만 여전히 아무런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2월에 신부님께서 저의 형의 사망소식을 상세히 적어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포도 수확이 한창 때인 그 때 저는 먼 이국 땅에서 가장 잔인한 시련을 겪었을 형을 머리 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다시는 형을 못 볼 가족들을 생각하며 슬픈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마지막 순간까지 형이 숭고한 희생을 바친 하느님 안에 굳은 믿음을 가지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형이 포로 상태에 있는 동안 당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입니다. 1937년에 이곳에 왔을 때, 형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포옹하고는 1950년에 다시 만나자며 저에게 약속했지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달리 계획하시어, 형은 천국의 고향으로 돌아가 이 땅에 심은 모든 희생의 보상을 받고 계십니다.
저에게 유가족으로서 형을 기념하도록 형의 유품을 보내주시겠다는 신부님의 제안에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의 성무일과와 십자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작을 신부님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형의 뒤를 이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유품들은 신부님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천천히 보내주셔도 됩니다.

며칠 전 파리 본부를 통해 주소를 받아서 신부님의 모친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신부님의 나이는 모르나 프랑스에 오시는 기회가 있거든 꼭 한 번 신부님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신부님의 고향집으로 가시는 길에 저희 집에 들려주시면 신부님을 포옹하며 형을 다시 뵙는 듯할 것이며, 신부님으로부터 저의 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몰리나르 신부의 장례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회 장상들과 행정관들 그리고 교우들에게 저를 대신하여 감사말씀 전해주십시오. 이곳의 형의 본당에서도 대미사를 집전하여 많은 신부님들과 교우들이 참

석해주셨고 미래의 세대들에게 순교자의 영광된 죽음을 기리게 하기 위해서 본당 내에 대리석 기념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구에서는 주교님의 지시로 교구내 모든 본당에서 미사를 올렸고 주교님께서도 주교좌 성당에서 대미사를 올렸으며 끝으로 저희 고향 사제가 몰리나르 신부의 살아 온 길을 회고해 주셔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제들과 교우들이 보여 주신 호의와 성의에 저희 모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알려주시고 슬픔에 빠진 저희 가족들을 위로해 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몰리나르 Ch

회고 박 마리데레사 수녀

1957년 당시 금사리 본당에 계시던 김영환 신부님이 규암에 본당을 짓고 나서 이곳에 병원을 지어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신다고 병원을 지었다. 우리 수녀들을 청하여 병원과 전교 사도직을 맡게 하였다. 박 마리데레사 수녀는 당시 노비스였는데 약국을 맡았고, 김 요한 수녀는 아스피랑이었는데 간호사로 일했다. 김 바오로 수녀와 김 아오스딩 수녀는 전교수녀로 활동하였는데 조금 후에 전교수녀 필요 없대서 김 바오로 수녀님이 떠나고, 나중에 글라라 수녀가 아오스딩 수녀 후임으로 왔다. 병원 구내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에 수술실 1, 약국1, 서무실 1, 진찰실 1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술라 수녀 언니가 당시 서울대병원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 언니를 통해서 김영환 신부님이 서울대 병원 의사를 초빙했다. 첫 의사는 최병무 선생으로 4개월간 일했다. 다음에 오신 선생님은 결혼하여 규암에 가정을 꾸리고 꽤 오래 있었다. 논산에 계신 성 신부님이 수단을 입으시고 자전거로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고해성사를 주셨다. 농업이 주를 이루는 가난한 마을이라 병원도 가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부여는 당시에 공소였는데 부여가 신자가 더 많은데도 몰리나르 신부님의 유언을 실행하려는 성 신부님의 뜻에 따라 규암에 성당을 지었다. 우리 수녀들이 부여에 직접 가서 전교했다. 규암에 살면서 걸어서 공소들을 많이 방문했다.